

특별취재

군산시, 연말 다수 부분 표창

자전거 우수시책 국무총리 표창·주거복지 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등

군산시가 2016년 건설교통업무 연말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건설교통국 건설과가 행정자치부 주관 '자전거도로 자활사업 협약시책' 분야와 주택행정과가 국토교통부 주관 '주거복지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라북도 주관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에서 도로 유지관리 평가에서 최우수상 및 건설업활성화·토지·지적관리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국민안전처장관상 시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군산시가 핵심 기반시설인 SOC사업을 확대하고 각종 국가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건설행정 서비스 제공, 자활사업과 연계된 자전거도로 관리체계 마련 등 시민의 운전자로 관리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적극 추진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자전거 우수시책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군산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군산지역자활센터'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자전거도로 제조사업·청소를 신속히 처리하여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절감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무총리 기관 표창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훈련과 유관기관간 훈련에 따른 토론, 시민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자체교육, 안전체험행사 및 안전체험관 활용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또한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부응하는 등 교통안전 시범도시로서의 면모를 적절히 보여줘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 전라북도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건설업 활성화 부문 전라북도지사

우수상은 도내 건설공사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발주,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지역차별 이용정보 제공 등 잠재된 건설경기 회복에 행정력을 배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지반을 시행 전에 부여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바가 커 전북도 토지·지적관리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군산연결도로 부분개통, 동백대교 진입로(해빙C) 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도심속 하천정비와 내한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초청 송년행사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는 최근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 신규병)와 함께 익산시 영등동 '동보성'에서 북한이탈주민 85세대 104명을 초청, 저물어가는 한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기를 바라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익산경찰과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된 정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정성껏 준비한 위문품(라면, 김 등)을 전달하고 함께 만찬을 즐기며 탈북민 2세대들과 노래하고 다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익산경찰은 외롭고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익산경찰을 의탁하고 있는 탈북민 한 00(여, 40세)에게 감사장을 전달 위문 격려했다. 수상자 한00은 탈북민 형제들을 위해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애써 겸손해 하면서, 탈북민에게 사랑과 보살핌으로 위로해주신 신변보호관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정웅 위원 추대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이정웅 위원을 제3기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알렸다.



이정웅 시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웅 위원은 지난 43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익산 교육발전의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리영등초등학교 교장(前), 이리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前), 군산익산법원 조정위원(現),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 감사(現)를 역임한 바 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정웅 위원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높이 평가해 민장 일치로 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정웅 위원장은 "시민들의 복잡한 고충민원의 해소를 통해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건설산업 활성화 전라북도 평가 익산시 최우수 기관 선정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평가에서 익산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6일 남원시 컨벤션리조트에서 열린 '전라북도 건설교통 공무원 워크숍'에서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수주와 하도급 현황, 건설자재, 수주단 활동 실적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시는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부실한 지역건설업체 정비 및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설계단계부터 지역건설자재 사용을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조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수상은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를 적극 참여시키고, 지역 건설자재 사용을 향상을 위해 힘써온 사업부와 계약부서의 공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업체 수주와 지역 업체 참여를 증대하고 지역자재 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하림그룹과 지역발전 상생모델 견인

NS홈쇼핑 주관 전국요리경연대회 개최 등 먹거리 테마로 관광활성화 기여

정현을 익산시장은 최근 익산 향토 기업인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을 방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하림그룹의 큰 역할을 당부하면서 식품산업 등과 연계된 협력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익산발전을 위한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자리에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NS홈쇼핑 주관 전국요리경연대회 익산개최, 건립과 하림공장 및 닭 박물관과 미륵사지 관광지 등을 연계하여 먹거리를 테마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 NS홈쇼핑이 주관하는

전국요리경연대회인 '우리 먹거리 요리축제'는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9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참가인원 2~3만명으로 국내 개최 최대 요리대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총사업비 4,000여억 원을 투자하여 1,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될 명성공장 증설공사와 익산제4산단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 단지를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등 익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익산시를 식품산업과 관광지를 연계한 지역발전 성장모델로 육성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하림그룹은 1986년 하림식품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10조원 초과 매출을 달성한 익산시 기반으로 한 국내 육산 식품, 물류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김홍국 회장은 초등학생 시절 병아리 10마리에서 재계승 위 38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이다.

특히,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지주회사인 하림홀딩스 본사를 익산에 연고로 하는 등 특별한 애郷심으로 각종 세금을 지역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해신동, 도심 속 생태·힐링 공간으로 재탄생

자연마당·도시숲 등

군산시 해신동이 도심 속 생태·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해망동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해망동 옆에 자리한 군산시 '해망 자연마당'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주거지 철거 후 수년간 방치돼 있던 유휴지에 36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원으로 복원했다.

입구 광장에는 옛 우물을 복원해 그 시대 추억을 떠올리게 했으며, 해망동의 과거를 기억하려는 의미에서 '해망 자연마당' 현판과 주거지 상징물을 설치해 과거와 현재를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월명공원과 연계한 생태탐방로는 기존 울퉁불퉁을 철거하고 나온 물을 재활용해 아끼지 않은 물길들을 만들어 자연과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다양한 식재환경과 들쭉수, 단단습지 등을 조성해 도심 내 다양한 생물을 체험하게 하고 자연석 포장 및 나무 울타리 등도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해 최대한 자연을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밖에도 해망 239길 산책로, 야생화 단지, 오래된 거목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군산항의 부잔교를 모티브로 설치한 뜬다리 전망대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신흥동에 조성된 대규모 도시숲은 월명공원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자연재해위험 정비지역을 새롭게 복원했다.

또 각종 철거사업으로 도심 속 오지로 전락했던 신흥동에 근대마을이 새롭게 조성된다.

시는 고지대 불량주거지 정비사업으로 매입된 신흥동 일원 1만㎡ 부지를 근대역사문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특화해 관광지를 조성하는 근대마을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근대마을조성사업 기반방향은 속박공간과 체험공간을 섹터화하고 다양한 콘텐츠보다는 근대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형 체험관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어려운 이웃돕기 나눔의 손길 이어져

익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크레파스 봉사단(대표 박강진)은 지난 16일 회귀난치성아동에 전달해 달라며 200만원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박강진 대표는 "어려운 가정으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병원을 다녔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후원하게 됐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익산시 영등동 희망동행 사랑의 꾸러미 전달식이 지난 12월 15일에 영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사랑의 꾸러미 지원 사업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한 민간협력배분사업으로 영등동 지역 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선정돼 동 특화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날 사랑의 꾸러미는 3만원 상당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담겨 있으며 영등동 복지봉사대에 전달되며 외롭

게 홀로 지내는 64명의 어르신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범용 영등동장은 "이번 사랑의 꾸러미 전달은 작지만 민관이 함께하여 내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연계에 협의체 위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영등동 희망동행 위원들은 봉사단에 소속되어 주말에 저소득 가구의 도배를 해주고 장판과 전등을 교체 해주는 봉사활동과 추석이 나설 명절별 만 아니라 틈틈이 성금과 쌀 부식 등을 전달하는 등 위원들 개개인이 꾸준히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꾸러미 전달 외에도 저소득층 7가구에 대해 300만원의 긴급구호비를 지원 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고군산군도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고군산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안)에 대해 심의결과 새만금사업 지역(3.3km)에 대해서만 오는 27일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 5년간 재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신시도·선유도·무녀도리 일부와 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고군산군도 6개리 9.8km중 6.52km가 해제되게 됐으며, 이는 기존 허가구역면적 대비 71.0%다.

이들 지역은 군산시와의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없어져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앞서 고군산군도는 2006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 12월 재조정 된 바 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없이 10년 동안 거래가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았으며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6.52km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등향 및 자가 변용 등 부동산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우려 등 이상 징후 포착될 시 즉각 재지정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시민영상제작자 이규섭씨 한국영상문화제전 실버부분 우수상 수상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최한 한국영상문화제전에서 익산 시민영상제작자 이규섭(66)씨가 제작한 '손주됐다'만든 환호블루스'가 실버부분 우수상을 차지했다.

최근 진행된 한국영상문화제전은 전국의 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스태프, 미디어교육 강사, 시민제작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다양한 영상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한국영상문화제전에서 '시민영상 콘텐츠 콘테스트'에는 총 312편의 영상이 출품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총 24편이 선정되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규섭(66)씨는 '요즘 손주 돌보미로 노후생활을 바치는 노인들이 많은데, 힘들지만 손주 돌보미 생활로 보람을 찾고 있는

노인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처음으로 제작한 영상이 많은 사람들 앞에 상영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상작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행한 익산노인영상제작교육 수료 작품인데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른 영상제작 기초교육>은 어르신들이 직접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촬영, 편집, 상영해보는 영상제작 기초과정으로 수업을 통해 미디어 활용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인영상제작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미디어 제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보건의소, 내년 헬스 프로그램 희망자 모집

군산시보건의소(소장 전형태)가 내달부터 4개월간 2017년 제1기 헬스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운동부족으로 비만을 동반한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거나 건강위험군에 속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건강증진실에서 운영한다.

대상자는 군산시민과 서천군민으로 주간반 60세 이상(60명)과 성인(140명), 야간반은 직장인(150명)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체질량 지수 25 이상, 체지방률 남자 25%, 여자 30% 이상, 복부둘레 남자 35인치, 여자

33.5인치 이상이다.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이 지속적·효율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운동지도 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체지방 골격근량, BMI 등 각종 측정을 통해 개인 건강상태개선 정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별 상담도 지원된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의소장은 "시민들이 규칙적이고 건강한 신체활동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